

# 독도의 진실\_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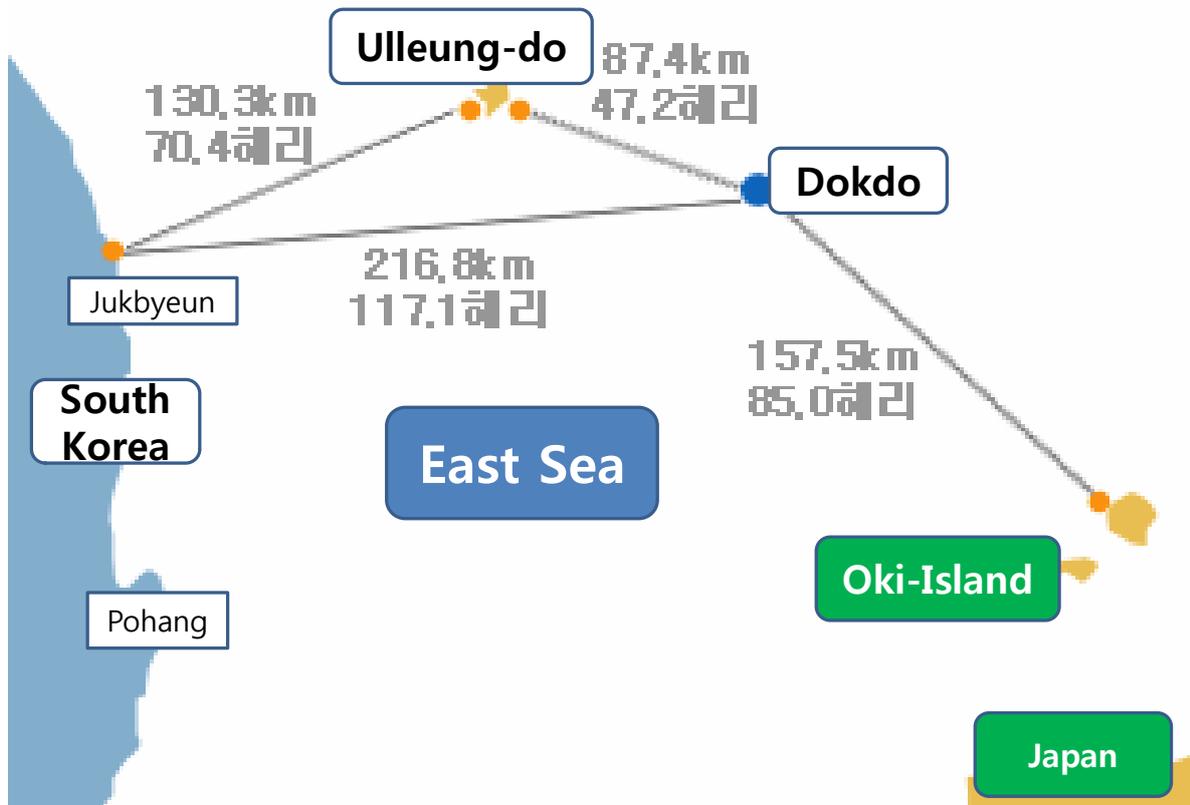
## 우산국과 우산도

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

### 1. 독도의 위치

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토로부터의 거리, 울릉도부터의 거리, 그리고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인 오키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 알아본다.

\*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 쪽 방향으로 87.4km 거리에 있고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. 한편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157.5km 북서 쪽 방향에 있으나 오키섬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.



## 2. 최초의 독도에 관한 기록

- 그러면 한국의 기록 중 처음으로 독도에 관해 기록한 문서는 무엇인가?
- <삼국사기> (1145) 속에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. 서기 512년의 기록에 '우산국'이 기록되어 있다.
- 신라의 **하슬라군주 이사부**가 우산국을 신라 땅으로 만드는 얘기가 그것이다.

## 1) <삼국사기> 속의 우산국

### <요약>

- 512년, 그때는 신라 **지증왕**의 치세였다. 지증왕은 동해의 섬들에 대한 지배욕이 강했다. 그러므로 그는 **하슬라군주**(하슬라군 : 현재의 강릉) **이사부**에게 동해에 있는 **우산국**을 정복하여 신라 땅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다.
- 이사부는 우산국사람들이 성격이 거칠고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떤 계략을 생각해 냈다.
- 그것은 나무로 **사자**를 많이 만들어서 우산국사람들을 위협하는 계략이었다.
- 나무로 만든 사자들을 가득 싣고 이사부의 군대는 울릉도로 향했다. 그리고 울릉도의 해안에 도착하자, 사자들을 해안에 놓고 그는 외쳤다.
- **“항복해라. 그렇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놓아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!”**
- 나무 사자들을 진짜 맹수로 생각한 우산국사람들은 **이사부군 앞에 모두 항복**했다.
- (이렇게 해서 우산국은 신라 땅이 되었고 현재까지 한국 영토로 남아 있다.)

## 2) 『삼국사기』 원문을 살펴보자

여기서는 <삼국사기> 원문을 확인하도록 한다. 원문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.

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관해서는 <삼국사기> 권4, 신라본기 4(지증마립간 13년 6월조)에 실려 있다. 한문으로 쓰인 원문을 한글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.

-----  
\* 13년(서기 512년) 여름 6월, 우산국이 귀속해 와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헌상했다. 우산국은 명주(=강원도)의 정동쪽 해상에 있는 섬이고 울릉도라고 한다. 그 섬은 사방이 100리이고 그들은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속하지 않았다.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다.

- 그는 우산국 사람들이 우둔하고 성격이 몹시 거칠고, 무력만으로는 항복 시키기 어려우나 계략으로 임하면 복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.
- 그래서 많은 목제 사자를 만들어 군선에 나누어 실었다. 그 나라 해안에 도착하자 속여서 말하기를 “너희가 만약 복속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놓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.”
-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곧 항복했다.  
<삼국사기> 권4, 신라본기 4(지증마립간 13년 6월조)

-----

## 『삼국사기』권4, 신라본 기 4 한문원문

오른쪽 한문은 <삼국사기>의 우산국 정복 기록 원문이다. 한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十三年夏六月于山國歸服歲以土宜為貢于  
山國在溟州正東海島或名鬱陵島地方一百  
里恃嶮不服伊飡異斯夫為何瑟羅州軍主謂  
于山人愚悍難以威來可以討服乃多造木偶  
師子分載戰船抵其國海岸誑告曰汝若不服  
則放此猛獸踏殺之國人恐懼則降

### 3. 일본 측 비판 :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

그런데 일본 측이 <삼국사기> 512년의 기록에는 울릉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, **독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** 반박한다. 그들이 당시의 우산국이란 울릉도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우산국은 **국가로서의 범위**를 갖는 나라였다. 특히 맑은 날씨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. 그러므로 울릉도 거주민들은 독도를 보면서 **독도까지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다**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한국의 많은 고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도(=독도)가 그려져 있다.



19세기 중반에 제작된 <해동여지도>의 울릉도, 독도 부분. 독도가 정확히 우산도로 그려져 있고 독도의 산봉우리까지 잘 묘사했다.

- 그리고 <세종실록 지리지>(1454)에는 '우산과 무릉(=울릉) 두 섬은 (중략)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.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했다'라고 적혀 있다. 즉 우산도(독도)와 울릉도를 신라시대에 '우산국'이라고 불렀다는 뜻이다.
- 시대가 내려가 공식문서 <동국문헌비고>(1770), <만기요람>(1808), <증보문헌비고>(1908) 등에는 '우산과 울릉, 모두 우산국의 땅,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(=독도)다.' 라고 적혀 있다.
- 여기에는 우산도가 우산국의 땅, 즉 조선의 땅이고 독도라는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었다.
  - (주) 일본은 19세기까지 독도를 송도(松島)라고 불렀다.
- 즉,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로 구성되었고 우산도는 바로 독도였다.

- 그러므로 **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** 이루어진 나라였고 **512년부터 한국땅이** 되었다.
- 일본의 주장은 **<삼국사기>만을 부각시켜 다른 문헌을 무시**하는데서 비롯된 **왜곡에 불과하다.**

#### 4. 고려에 조공하러 온 울릉도사람들

신라 땅이 된 우산국은 이후 신라통치 하에서 평화스러운 나날을 보냈다. 그런데 신라시대가 끝나 **후삼국시대가** 된 **930년** 울릉도 사람들이 **고려의 태조 왕건**을 알현하고 **조공**했다.

930년경에는 **한반도의 새 주인이 고려**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울릉도 사람들은 고려의 왕건을 자신들의 새 임금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다. 이후 935년 신라가 자진해서 고려에 흡수되었고 **936년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**했다.

이와 같은 사실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-----  
\* 『고려사』권1, 태조13년(930년) 8월 조  
우릉도(=울릉도)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  
어 토산물을 바치거늘 백길을 정위(正位)  
로 토두를 정조(正朝)로 삼았다.

-----  
위 원문을 보면 왕건이 울릉도 사람들에게 정위  
와 정조라는 벼슬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. 울릉  
도와 독도는 이렇게 하여 고려 땅이 되었다.